

올 여름 파리에서는 르브론, 커리, 듀란트가 한 팀



▲ 왼쪽부터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사진=AP/뉴시스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와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케빈 듀란트(피닉스)와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미국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서 뛰다면 어떤 느낌일까? NBA에서는 샐러리캡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라인업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름아닌 오는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스포츠매체 디에슬레틱은 이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대표팀 12명의 엔트리 가운데 11명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디에슬레틱이 확인한 명단에는 위의 4명을 포함해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즈루 홀리데이(보스턴), 데빈 부커(피닉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인디애나),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앤서니 데이비스(LA 레이커스), 뱀 아데바요(마이애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디에슬레틱은 마지막 12번째 자리에는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이상 LA 클리퍼스), 파울로 반케로(올랜도), 미칼 브리지스(브루클린), 제일런 브런슨(뉴욕) 등이 언급된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에서 NBA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

출전했으나 준결승에서 독일, 3위 결정전에서 캐나다에 연달아 패했다. 2019년 대회에서도 7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FIBA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에서는 계속 금메달을 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동메달)을 빼면 1992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매년 우승했다.

미국은 늘 자국 농구의 위상이 흔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준결승에서 당시 소련에 패해 자존심을 구졌던 미국은 1992년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래리 버드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호출해 '드림팀 1기'를 꾸렸다.

이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준결승에서 마누 지노빌리가 활약한 아르헨티나에 패하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 제임스, 크리스 폴(골든스테이트) 등 포지션 최고 선수가 총출동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역대 최강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슈퍼팀'을 꾸리려는 것도 최근 FIBA 월드컵에서 연이은 부진으로 최강국의 명성이 깎인 탓이 크다.

마이클 조던과 역대 최고 선수 논쟁을 펼치는 제임스는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냈고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듀란트도 2012년 런던과 2021년 도쿄에서 맹활약해 미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커리는 올림픽에는 나간 적이 없고 2010년과 2014년 월드컵에 나가 금메달을 따냈다. 이 두차례 월드컵에는 제임스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다.

여성만 수영복? ... 미국 육상팀 복장 논란

7월에 열리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선수들의 경기복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 육상전문매체 시티우스는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육상 대표팀이 착용할 나이키 경기복을 공개했다. 문제는 여성용 경기복이다. 공개된 운동복은 골반부터 다리 전체가 흰히 드러나는 형태라 속옷조차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선수 측은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 장거리 미 국가대표인 로런 플레시먼은 인스타그램에 "선수는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옷이 실제로 기능적으로 좋다면 남성들도 입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육상 경기용 엘리트 운동복이 아니다"며 "여성 스포츠를 주목하는 데 더 이상 환영받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가부장적 세력이 낳은 의상"이라고 표현했다.

장대높이뛰기 선수 케이트 문은 "당연한 우려"라면서 "경기복 선택은 선수의 자유"라고 밝혔다. 케이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가지 이상의 상하 조합이 가능하며, 원하면 남성복도 입을 수 있다"며 "나는 달라붙지 않는 속옷 형태의 하의를 선호한다. 포대 자루를 입든 수영복을 입든 선수가 원하는 의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멀리뛰기 스타 타라 데이비스-우드홀은 "우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자신 있는 것



▲ 나이키가 공개한 2024 파리 올림픽 미국 육상대표팀의 경기복. 왼쪽이 남성 경기복, 오른쪽이 여성 경기복. 사진=instagram(citiusmag)

을 지켜보는 남성들을 달래려고 웃을 고르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고 인스타그램에 적었다

최근 스포츠 계에선 신체 노출 의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노르웨이 여성 비치헨드볼 선수단은 비키니 착용 규정에 항의해 유럽선수권대회에 반바지를 입고 출전해 벌금을 받았다. 같은 해 도쿄올림픽에선 독일 여성 기계체조 대표팀은 전신 슈트를 입고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뉴질랜드 체조협회는 이달 반바지나 레깅스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바꾸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복을 제작한 나이키 측은 "선수들은 원하는 경기복을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나이키 측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때는 짧은 속바지 형태만 제공했지만, 이번엔 여러 선택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 육상협회 대변인은 "이번 출시의 상은 많은 옵션 중 두 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